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.

미술관에서 '찰칵, 찰칵'

어떻게 생각하십니까

'인증샷' 찍어 홍보하는 젊은 층에 "전시 관람 방해한다" 항의 많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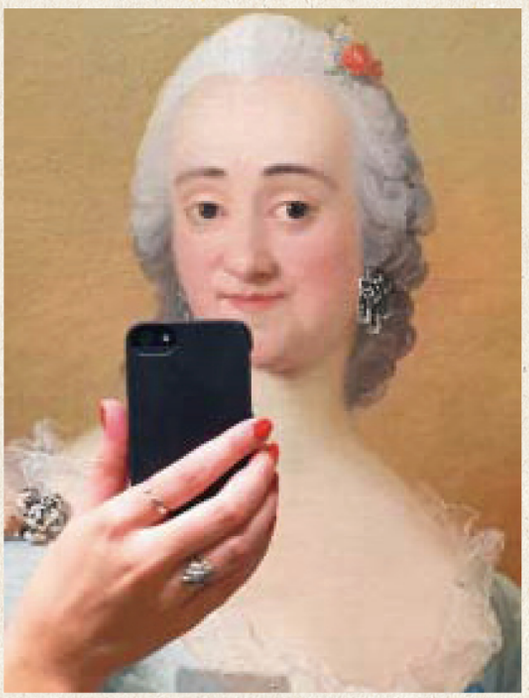
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른바 '인증샷 세상'. 미술관도 예외는 아니다. 요즘 인기 미술관은 작품 앞에서 셀카 찍는 사람들로 넘쳐난다.

특히 20대가 열광한다. 대학내일연구소가 최근 1년 내 전시 관람 경험이 있는 20~29세 남녀 537명에게 전시장에서 인증샷 찍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니 10명 중 9명(89.6%)이 '그렇다'고 답했다. 대학생 박한나(22)씨는 "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건 내가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이미지 만들기의 일환"이라고 했다.

사진 촬영을 허락하는 미술관들도 크게 늘었다. 대영박물관, 루브르박물관,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해외 유명 미술관들은 물론, 국내 미술관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. '마음껏 사진 찍을 수 있는 미술관'으로 소문난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은 인증샷을 찍어 보이면 무료 재입장이 가능하다. 서울미술관은 전시마다 포토존을 마련했고, '테이트 명작전'이 열리고 있는 소마미술관은 매주 월요일을 '포토데이'로 지정했다. 지난 8월 사비나미술관의 '셀피'전(展)은 관람객에게 '셀카'를 찍을 수 있도록 해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(2만7000명)을 불러모았다.

반면 셀카족에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도 늘었다. 직장인 윤솔(35)씨는 "미술관 주목적이 그림 감상인지 사진 촬영인지 헷갈릴 정도"라며 혀를 찼다.

디뮤지엄을 방문한 주부 김원희(50)씨는 "'찰칵' 소리에 전시에 집중할 수 없다"며 "그들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고 피해다녔다"고 했다. '미술관 셀카족'으로 작품이 훼손된 경우도 있다.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허시혼박물관에서는 구사마 야요이 전시를 관람하던 한 관람객이 셀카를 찍으려다 발을 헛디뎌 디면서 호박 형태의 작품이 깨지는 소동이 벌어졌다.



사비나미술관
명화 속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올리비아 무스의 작품 '뮤지움 셀피 프로젝트'

미술관 측은 "사진을 통한 전시 홍보 효과가 큰 만큼 섣불리 제한할 순 없다"는 입장이다.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은 "포토존을 만들거나 특정 요일을 정해 촬영을 허용하는 식으로 양쪽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"고 말했다.

정유진 기자

– 조선일보 2018년 1월 2일



이 기사를 3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.



이 기사의 색칠된 부분을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